

“선거법 걸릴라”… 지자체 각종 행사 취소·연기

SOCIETY

2025년 4월 15일 화요일

지자체장 공직선거법상 대선 60일 전부터 제한 규정 보조금 받는 민간단체도…입영·예비군 날짜도 조정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일이 확정됨에 따라 광주 지역에서 예정된 주요 행사 및 일정이 취소·연기되는 등 혼선이 속출하고 있다.

14일 광주시선관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로 확정하고, 이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또 사전 투표일을 5월 29~30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주최·후원 등으로 진행되는 비정기적인 행사 혹은 사람을 대거 모집하는 행사가 취소하거나 일정을 조정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86조)이 ‘자치단체장이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 보조금을 지원받아 민간단체가 개최하는 행사도 선거법상 제한 대상이다.

행사 성격에 따라 선거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대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탓에 지자체들이 괜한 오해를 사느니 행사를

아예 취소하거나 선거 기간을 멀찌감치 피해 일정을 앞당기거나 늦추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동구는 5월 13·27일 예정된 주민과의 대화와 5월 중순에 열릴 산수2동 마을사랑채 개소식을 6월 중으로 연기했다.

또 13개 동 5월 통장회의와 주민자치회의 등은 미개회 혹은 서면회의로 바꿀 예정이며, 동에서 추진 예정이던 주민행사(문화탐방)는 선거 이후로 연기, 구청장이 참여 예정이던 아파트 네트워크 협약식은 자체 간담회로 대체한다.

5월31일~6월1일 무등산 증심사지구 일원에서 추진될 예정이던 제3회 동구 무등산 인문축제의 날짜 변경을 고려 중이다.

서구는 매년 4월 말께 양동시장 일원에

서 열리는 통맥 축제를 가을축제와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며, 주민자치과에서 추진하던 BI 주민정책 간담회도 6월 이후로 일정을 바꿨다.

또 다음 달 2일로 계획한 서구민의 날 행사도 주민과 함께하는 행사인 만큼 약식 행사 또는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

남구는 5월29일로 예정됐던 ‘김현승 시문학제’를 6월17일로 미뤘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제한됨에 따라 광산구는 지난 7일 예정됐던 어룡동 천원밥상 1호점 개소식 행사를 취소했다.

아울러 병무청은 대선일인 6월3일 병역판정검사를 쉬어가고 현역병 입영 일자 등을 조정한다.

이에 광주지방병무청을 포함한 14곳 전

국 병역판정검사장·중앙병역판정검사소는 이날 모든 신체검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재신체검사)를 미 실시한다. 이날 입영 예정인 현역병은 하루 뒤인 6월4일로 입영 일자가 조정된다. 입영 부대 및 입영 시간은 오후 2시로 기존과 동일하다.

예비군 훈련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선거기간 중인 5월12일부터 6월3일까지 중단한다. 병력 동원훈련소집·예비군 대체복무 소집 예정인 사람들의 소집일은 선거일 이후 조정될 예정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역병 입영대상자, 병력 동원훈련소집대상자들의 일자 변경 내용은 개인 알림톡 발송과 병무청 누리집 게시 등을 통해 공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광산구, 7월부터 ‘에콜리안 광산CC’ 직영 운영 조기이관 업무협약…30일까지 새 이름·슬로건 공모

광주지역 친환경 대중 골프장인 ‘에콜리안 광산CC’가 오는 7월부터 광산구 직영으로 운영된다.

광주 광산구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에콜리안 광산CC 조기 이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자체 직영 협약은 가창CC에 이어 두 번째로 체결됐으며, 지난 2023년부터 1년 6개월 동안 체육공단과 상호 조율 끝에 결실을 보게 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병구 광산구청장, 하형주 이사장, 김명수 광산구의회 의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체육공단은 오는 7월1일부터 골프장 관리·운영권을 광산구로 이관한다.

해당 골프장 직영 운영에 나서는 광산구는 체육공단 전체 투자비 137억 원 중 미회수 투자금 약 75억원을 6년에 걸쳐

분할 상환, 공공형 골프장 기능을 유지한다.

광산구는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해 7월 전까지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 조례 제정, 시설물 정비 등 행정력을 집중한다.

또 시민들이 광산CC를 즐길 수 있도록 △골프인제 육성 △구민 골프교실 운영 △골프 무료 레슨 △사회공헌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아울러 광산구는 30일까지는 새 골프장 이름과 슬로건 공모를 진행한다.

심사기준(직관성·대중성·독창성)에 따라 선정된 2명에게는 10만원 상당의 모바일 교환권을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광산구 누리집 새 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광산구 체육진흥과(062-960-3807)로 문의하면 된다.

임정호 기자 ljh4415@gwangnam.co.kr

4월 중순인데…구례에 한때 ‘대설주의보’

무등산도 진눈깨비 내리

봄기운이 완연한 4월 중순에 전남 구례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이상 기후 현상이 나타났다.

광주지방기상청은 4일 오후 4시께 구례 일대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했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눈이 5cm 이상 쌓일 것으로 예측될 때 내려지는 것으로, 올해 4월 첫 광주·전남지역 대설 특보였다.

구례 성삼재는 해발고도가 1000m 이

상인 곳으로, 해당 지역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오후 5시 기준 2.2cm의 눈이 내렸다. 무등산 일원에도 진눈깨비가 내렸다.

비가 내린 곳도 많았다. 오후 5시 기준 강수량은 담양·장성 10mm, 영광 8.3mm, 나주·곡성 8.0mm, 광주 7.5mm, 화순·함평 7.0mm, 구례 6.5mm, 완도·고흥 6.0mm 등이 다.

논과 벼는 15일 오전부터 소강상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양홍민 기자 yhb9792@gwangnam.co.kr



제55주년 4.14.(월). 10:00 광주행사위원회 출범 제55주년 4.14.(월). 10:00 광주행사위원회는 14일 광주시청 앞에서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지역 환경, 마을,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75개 기관, 단체들이 참가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환경과 생태계 보전을 범국민적 관심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광주 동명동, 전국 대표 골목상권으로 ‘날갯짓’

동구, ‘우수상권 육성사업’ 선정…브랜딩화 전략

광주 동구 동명동이 전국 대표 골목상권으로 도약을 위해 날갯짓을 하고 있다.

14일 동구에 따르면 ‘동리단길’로 알려진 동명동은 SNS 입소문을 타고 카페와 맛집이 유명한 상권으로 떠오르며 젊은이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시장 변화에 따른 폐업도 늘고 있어 로컬 브랜딩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동구는 지난해 동명공동체상생협의회와 함께 광주시 ‘우수상권 집중 육성사업’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동명 로컬 콘텐츠 타운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들은 ‘동명, 칸타타 산책길’ 비전의 마스터플랜 수립, 로컬 브랜드 구축을 통

한 스토리 BI 개발, 디지털·커피·로컬 매거진 등 동명 로컬 콘텐츠 개발 지원, ‘동명커피산책’ 굿즈 개발·연계 운영, 10곳의 동명동 대표 상가 선정 및 현판 설치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4만여명의 방문객이 동명커피산책을 찾았고, 동명동 인근 상가 매출이 올라 광주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연속 2년 차 사업으로 12월까지 추진된다.

주요 사업은 동명 로컬 콘텐츠 타운 상징 조형물·테마 거리 조성, 동명 로컬 굿즈 개발, 동명 일상 투어 프로그램 ‘동명 걷다’ 추진, 지역관리회사 육성 및 거버넌

스 구축 등이다.

동구는 동명의 일상에서 개인의 취향을 경험하는 체류형 콘텐츠 ‘동명걷다’를 추진해 365일 풍경이 되는 동명 로컬 자원을 매칭한다.

이와 함께 카페거리의 특성을 살린 동명 로컬 굿즈 개발을 지원해 수익 창출 시스템을 만들고, 커피의 정체성을 살린 테마 거리·상징 조형물을 설치해 테마골목길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 같은 차별화된 로컬 브랜딩으로 동구를 방문한 관광객이 동명동에서 체험하고, 즐기며, 더 오래 체류하게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유동 인구 증가, 상업가 매출 증진, 로컬 일자리 창출, 문화관광 활성화 등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송태영 기자 sty1235@

담배공초 부주의…창고서 불

창고에서담배공초 취급 부주의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한 소방당국이 출동에 나서.

14일 목포소방에 따르면 전남 오후 8시13분 목포시 용해동의 한 창고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

소방당국은 소방장비 8대, 소방대원 29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10분 만인 오후 8시23분 불길을 잡았다. 이 불로 창고에 있던 식자재가 소실돼 소방 추산 116만원의 재산 피해가 있었다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소방당국은 담배공초 취급 부주의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3@

30대 공무원 숨진 채 발견

공영주차장서 극단적 선택

광주 북구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30대 공직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14일 광주 북부경찰과 북구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0분께 북구청사 맞은편의 효죽주차장에서 북구청 공무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주차단 차량 안에서 발견된 A씨는 번개탄을 피워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A씨의 실종신고가 접수돼 동선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평소 우울증을 겪고 있던 A씨가 휴대전화에 남긴 유서를 바탕으로 정확한 사망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신안 홍도·가거도서 희귀·멸종위기 식물 3종 발견

국립공원공단 보고서…신안새우난초 등 200개체 확인

“탐방객 보호층 훼손 우려…정기적 관찰·종자 확보를”

신안 홍도와 가거도에 희귀·멸종위기 식물인 신안새우난초, 금새우난초, 다도새우난초가 자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반도 보호종으로 분류된 데다 개체수도 적어, 지속적인 보전 활동과 종자 확보가 요구된다.

14일 국립공원공단이 발간한 국립공원 주요 자생식물 서식지 보전 및 분포 모델링 연구보고서(10차년도)에 따르면 신안 홍도와 가거도에 신안새우난초

12개체, 금새우난초 178개체, 다도새우난초 25개체가 발견됐다.

이중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신안새우난초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신안 홍도 양산봉 일대)과 신안 가거도 독실산 지역에 각각 6개체가 자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음지, 토양습도가 적절히 유지되는 곳이 서식지다. 신안새우난초는 잎 뒷면에 가는 털과 연한 홍색의 화피편, 길이로 쉽게 구별된다.

이번 연구를 통해 신안새우난초를 비

롯해 새끼야재비, 탐라사다리고사리, 긴꽃머나리바람 등 확인됐다. 신안새우난초는 기후 변수를 통해 살펴보면 국립공원 내 주요 잠재 서식처가 부족하고,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과 태안해안국립공원에 소수 분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금새우난초가 국내 다도해해상국립공원(신안 홍도 양산봉 일대)과 신안 가거도 독실산 지역, 제주도 서귀포시 이승악로에 분포했다.

신안 홍도 해발 280~530m 반음지 숲 사면에도 100~150개체의 금새우난초가 있었다. 서식지는 구실잣밤나무 숲 일원에서 자생하고 있으며 현재 탐방객에 의한 무분별한 채취와 경쟁식물의 위



협을 받는 상황이다.

신안 가거도 독실산 일대에는 녹나무 숲 사이에 28개체의 금새우난초가 나왔다. 금새우난초의 꽃에서 주로 발견된 화합물은 진통, 불안 완화, 항염증 및 항균 효과를 보여주며, 특정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의학적 응용 가능성을 보였다.

금새우난초의 추후 서식지 또는 개체군 복원 적합지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포함된다.

다도새우난초는 신안 홍도(다도해해상국립공원)와 가거도의 숲 사면 반음지에 각각 22개체, 3개체가 분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도새우난초의 서식지는 활엽 상록수림으로 구실잣밤나무가 있어 개체 수는 적다. 이에 따라 상층입목의 성장에 따른 광 조건 악화로 개체소실이 우려된다. 특히 가거도는 탐방로와 인접한 곳에 자리하고 있어 탐방객에 의한 남획·훼손의 위험이 있다.

이처럼 개체군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관찰과 보전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립생태원, 신안군,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이 협력해 서식지 내 위협 요인을 파악하고 실용적 보전 방안과 지속적 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